

[1956-07-31, 에버렛 스완슨이 기도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 1956 년 여름 기도 편지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2:3-4)

기도가 응답된 것에 저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있는 저의 고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후원자들을 보내 주시기를 간청한 저의 기도를 진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린이들을 "입양"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로부터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어린이들은 제 긴급 자금이 한국의 보육원에 도착하기 전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을 다시 데리고 왔고 심지어 더 많은 어린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부 후원자는 "입양"한 어린이의 사진을 아직 못 받으신 줄 압니다. 어린이들이 등록되면서 사진을 촬영하고, 어린이 정보가 작성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또한 각 보육원에 번역가를 배치하여 편지와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보육원 별로 선물 추천 목록과 주소를 문의하십시오. 많은 분이 이 기회를 요청하셨지만, 그럴 여유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다른 새 보금자리, 곧 한센병 환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순천과 여수(한국에서 가장 오래됨) 사이의 큰 정착촌을 책임지고 있는 한 선교사는 재정적 지원 없이 이 소중한 어린이들을 위해 정착촌 바로 옆 외곽에서 작은 보금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정착촌에서 부모와 분리되지 않는 한, 그들은 이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는 이 상황과 필요성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 정착촌에서 약 600 명의 한센병 환자에게 설교했고,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이 소중한 어린이들을 보았고, 제 영화에서도 보여드린 바 있는 이 어린이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한 끝에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곳은 이제 한국에서 저의 4 번째 보육원입니다.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적절한 건물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약 50 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결정을 한 후 한 남자분께서 1,000 달러를 기부하셨고, 약 40 명의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한 어린이를 후원하는 데 비용은 한 달에 5 달러입니다(다른 고아와 동일). 이 소중한 어린이들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을 기꺼이 후원하고자 하는 분들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브라이트 스타 보육원(Bright Star Orphanage)에 있는 한센병 환자 부모의 자녀들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면에서 그들은 일반 고아들보다 더 불쌍합니다. 한국에서 '한센병 환자의 자식'이라 불리는 것보다 더 심한 낙인은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종종 그렇듯이 이 질병이 몇 년 후에 발병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한국의 일반 보육원은 이런 어린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 편지 이후로 저는 전도 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2 주는 제가 약 25 년 전 "소년 전도사"로서 섬겼던 일리노이주 소모노크(Somonauk)에서 보냈습니다. 워싱턴주의 벨링햄(Bellingham)과 마운트 버넌(Mt. Vernon)을 방문했는데, 이곳은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곳으로 이번 특별 집회를 위해 세 번째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미네소타주 포스톤(Fosston)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요!)에는 미시간주 그랜드 헤이븐(Grand Haven)에서 2 주, 그리고 15 년 전 집회를 가졌던 몬태나주의 그레이트 폴스(Great Falls)에서 2 주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다호주 코달레인(Coeur d'Alene)에서 8 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탕자처럼 집으로 돌아와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믿음과 희망, 용기로 영감을 받는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매일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메모와 편지를 자주 받을 수 있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과 가을에 미네소타주 클리어브룩(Clearbrook)과 베커(Becker), 아이다호주 쿠나(Kuna), 워싱턴주 밴쿠버(Vancouver)와 커스터(Custer), 그리고 미네소타주 슬레이톤(Slayton) 등에서 열리는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고려하고 있는 거지 소년들의 새로운 보육원을 위한 충분한 자금과 지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설은 소년들이 생활했던 도시에서 완전히 멀리 떨어진 외딴 시골 지역에 지어질 것입니다. 선교사들과 한국 지도자들은 현재 대구에 있는 뉴 라이프 보이즈 보육원(New Life Boy's Home)을 확장하기보다는 이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땅을 사거나 기숙사 건물을 짓는 등의 일에는 수천 달러가 필요하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저의 다섯 번째 보육원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믿음의 모험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매달 많은 분들이 어린이들을 신실하게 지원해 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에 따라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이 목적을 위해 지정 헌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영혼들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기회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을 위한 복된 섬김을 기뻐하며,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 대표, 에버렛 F. 스완슨 올림

추신.

약 3개월 전에 일리노이주에서 신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사회가 곧 열릴 것이며, 주 정부와 우리의 정기 후원자들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전에 대해 여러분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